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출현과 요동지역의 돌무덤*

박현주**

Ⅰ. 머리말
Ⅱ.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특징
Ⅲ. 요동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돌무덤 검토
Ⅳ. 요동지역 돌무덤과 적석총 출현의 의미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을 비교 검토해본 것이다. 고구려 국가형성기에 등장한 무기단 적석총은 산이나 구릉의 정상부 혹은 강변 평탄지에 입지하고 적석 분구의 평면은 원형, 방형 등의 형태를 하고 있다. 자연 강돌 또는 1차 가공석을 사용하여 조성하였으며, 매장부는 대부분 지상에 위치한다. 남아있는 매장부의 시설은 석광이지만, 목관이나 목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단인 화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발발자 유적에서 다인 화장한 고구려 중기 기단 적석총이 확인되어 일부 다인 화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외부에서 화장하여 소골하는 형태도 확인되었고, 매장부 내부에서 불을 지르고 돌로 봉하는 화장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망강루 고분군에서 부장품을 고의로 훼손하여 묻은 것이 확인되어 부장품의 훼기 풍습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은 출토 유물로 볼 때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상류 인근의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을 조영하였던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는 연-진-한의 교체와 고조선의 멸망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문화적 충돌은 한 유적에서 동시기에 여러 묘제가 공존하고, 동일한 묘제라 해도 다른 장법을 사용한 고분과 같이 일관된 장법이나 묘제의 규칙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을 발생시켰다. 요동지역 유적 가운데 특히, 통화 만발발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인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구조와 출현」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자 유적은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만발발자 유적의 3·4기 문화층은 고구려 국가 형성 직전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요동지역의 토착문화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만발발자 유적을 포함하여 요동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국가 형성 이전의 고분 양상을 살펴보고,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구조와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돌무덤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국가 형성 이전의 혼강과 압록강 유역에는 보편적으로 돌을 사용해 무덤을 축조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을 축조한 집단은 씨족 단위로 존재하면서 묘제를 통해 정체성을 지키고 토기 양식과 화장법을 공유하며 큰 틀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석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였으며, 적석묘의 등장 이후 다른 묘제들은 소멸하고 고구려의 적석총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적석총, 고분, 고구려,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통화 만발발자 유적

Ⅰ. 머리말

여러 세대를 걸쳐 재사용되거나 재점유되는 성곽이나 생활유적과 달리 고분은 당대 주민이 남긴 매장행위의 결과로 당시의 물질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가장 안정적인 실물 자료로 주목되어 왔다(동북아역사재단, 2020, 141쪽). 특히, 고구려 적석총은 지상에 마련된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와 적석분구(積石墳丘)를 특징으로 하여 지하에 마련된 매장주체부와 봉토(封土)로 이루어진 중국 중원이나 동북 지방의 여러 묘제와는 구조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30 동이전(東夷傳)」 고구려(高句麗)에 '금과 은, 재물을 모두 써 후하게 장례를 치르며,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1] 라고 기록되어 당시 주변 국가에서도 적석총을 고구려의 특징적인 묘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들로 고구려 적석총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관심받아 왔다. 1950년대 중국에서 집안 통구(通溝) 분지 일대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된 이후, 1978년에는 집안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 고분이, 1990년에는 장백(長白) 간구자(干溝子) 고분군이 발굴조사 되었다. 오도령구문 고분과 간구자 고분군의 발굴은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구조 형식 및 편년 연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북한에서도 1959년부터 압록강과 독로강 유역의 적석총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자성군 조아리·서해리·법동리·송암리 일대의 고분군

1)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30 동이전(東夷傳)」 고구려(高句麗))

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가 간행되면서 적석총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정찬영, 1963).

이러한 발굴 성과를 토대로 적석총 출현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이원설로 압록강 유역의 무기단 적석총은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2]에서 간구자 고분군을 거쳐 발전하고, 혼강 유역의 무기단 적석총은 대석개묘(大石蓋墓)의 덮개돌이 사라지고 적석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원설은 각각의 견해를 분리하여 발전과정을 단선적으로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이들 두 견해 모두 기본적으로 요동반도 남단의 여순(旅順)과 대련(大連) 일대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적석묘를 기원으로 보기 때문에 압록강과 혼강 유역 고구려 적석총과의 시·공간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발전적인 논의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 및 고구려까지 문화층이 이어지는 통화(通化) 만발발자(萬發拔子) 유적과 환인(桓仁) 풍가보자(馮家堡子) 고분군 등에 대한 발굴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하여 진전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발발자 유적, 풍가보자 고분군 등의 발굴조사 내용을 토대로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돌무덤과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의 특징적인 요소를 비교 검토하여 고구려 국가 형성 직전에 해당하는 여러 돌무덤과의 관계,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특징

1. 분포현황

적석총은 지상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주검을 안치한 후 다시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한 것으로 분구의 구조에 따라 무기단 적석총과 기단 적석총, 계단 적석총으로 구분된다. 적석총 축조 방식의 발전과 분화는 적석총의 시기적인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같은 시기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무덤 양식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23, 154-155쪽). 적석총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단 적석총이나 계단 적석총과 같이 발전된 단계가 아닌 고구려 초창기 적석총 즉, 무기단 적석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은 환인과 집안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장백과 임강(臨江) 그리고 서북한 지역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고분은 대부분 강과 하천을 따라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 크게는 네 구역—①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혼강 유역, ②고구려의 두 번

2) 고구려의 적석총은 그간 지속해서 사용되어 하나의 대명사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시기의 적석총을 청동기시대의 적석묘와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 적석총은 적석총으로, 그 이전 시기의 적석묘는 적석묘로 표기하고자 한다.

째 수도로 가장 많은 수의 고분군이 존재하는 통구분지와 압록강을 따라 이어지는 압록강 중류 유역, ③서북한지역 일대의 압록강 지류인 장자강(구 독로강)과 자성강 일대, ④압록강 상류 유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1]은 무기단 적석총이 보고된 유적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유구의 설명이나 도면 및 사진 등을 통해 무덤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개별 고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출토 유물이나 장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였다.

[표 1] 유역별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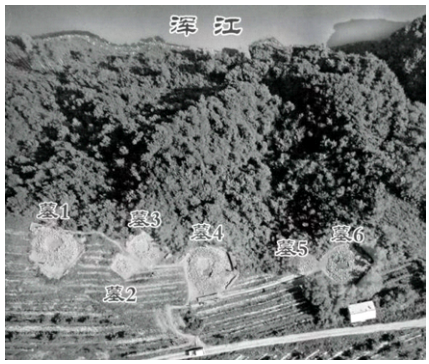
	고분군
혼강 유역	고력묘자(高力墓子), 고령지(高嶺地), 남두둔(南頭屯), 대협판구(大夾板溝), 대황구(大荒溝), 망강루(望江樓), 산두자(山頭子), 상고성자(上古城子), 양목교자(楊木橋子), 오도하자(楊木橋子), 왕의구(王義溝), 용두산(龍頭山), 채아보(蔡我堡), 천리(川里), 횡로구대(橫路九隊), 후대자(後臺子)
압록강 중류 유역	고마령고려묘구(古馬嶺高麗墓溝), 고령지(高嶺地), 고지(高地), 대고려묘구(大高麗墓溝), 마선구(麻線溝), 문악리, 미타골, 산성하(山城下), 서해리, 소고려묘구(小高麗墓溝), 상활룡(上活龍), 양민(良民), 연무리, 우산하(禹山下), 운평리, 장천(長川), 치안(治安), 칠성산(七星山), 태평구(太平溝), 파보촌(爬寶村), 하활룡(下活龍), 향양(向陽), 칠도구(七道溝)
장자강· 자성강 유역	등공리, 로남리 간평, 로남리 남파동, 로남리 내평, 법동리 신풍동, 법동리 하구비, 송묘리, 송암리, 송하리, 심귀리, 조아리, 풍청리, 하천장
압록강 상류 유역	금화(金華), 대장천(大長川), 동강(東江), 십사도구진 전참(十四道溝 電站), 십이도구(十二道溝), 칠도구(七道構)

2. 입지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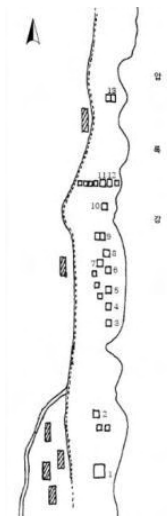
고구려 적석총의 입지는 대체로 산지입지형, 평지입지형, 복합입지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강현숙, 2012). 산지입지형은 산 정상부나 산기슭을 따라 내려오면서 개개의 단독분이 일직선상으로 분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고분군이 시작되는 산 정상부나 기슭에 무기단 적석총이 축조된 경우가 많다. 망강루 고분군[그림 1-①]은 산언덕이 융기한 가장자리 끝에 4기의 고분이 있으며, 2기의 고분은 산언덕의 완만한 비탈 위에 축조되어 있다(李新全, 2009, 107쪽).

반면에 강변 대지의 평탄면에 조성한 평지입지형[그림 1-②]은 집안과 초산, 만포, 위원 등지의 고분군이 해당한다. 이 경우 고분은 강의 흐름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한편, 긴 기간에 걸쳐 고분군이 조성되는 경우, 무기단 적석총과 기단·계단 적석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적석총은 산지와 평지 모두에 자리 잡게 된다. 이를 복합입지형[그림 1-③]이라 한다. 산기슭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성되어 무기단 적석총은 산 위쪽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분 배치는 적석총의 집단묘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무기단 적석총의 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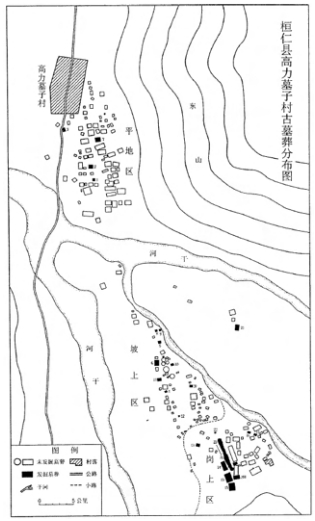
배치는 정연하지 못한 때도 있어, 초기에는 열상 배치의 전통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추정되고 있다(최종택, 2015).



① 망강루 고분군 항공사진
(양시은 2021, 도3-① 재인용)



② 양민전자 고분군
(林省長白文化研究會 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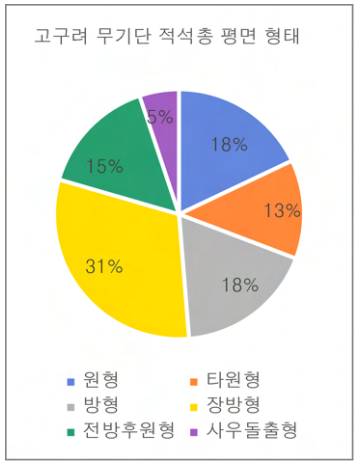


③ 고력묘자 고분군 분포도
(아즈마 우시오·다나카 도기아키, 2008)

[그림 1]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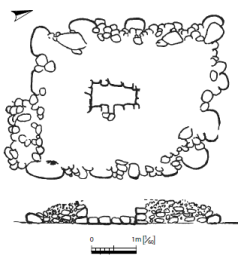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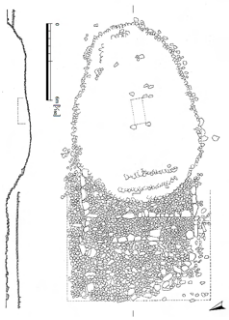
3. 구조

무기단 적석총은 돌의 가공과 무덤의 축조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 본래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보고가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무덤의 구조를 편의상 분구와 매장주체부로 나누고, 분구는 외관상 석재의 가공양상과 재질, 평면 형태와 규모 등을, 매장주체부는 매장부의 위치와 형식, 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 무기단 적석총 평면 형태 비율

[표 2] 무기단 적석총 평면 형태

원형	방형	전방후원형	사우돌출형
			
하활룡 8호 (集安县文物保管所 1984, 도7)	하활룡 24호 (集安县文物保管所 1984, 도11)	운평리 4지구 6호 (리정남, 1990)	연무리 2호 (리정남, 1989)

1) 분구

현재 발굴·보고된 무기단 적석총 가운데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고분 52기를 분석한 결과, 방형과 장방형인 방형계가 가장 많은 49%이며, 원형과 타원형인 원형계가 31%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원형계와 방형계가 적석총의 구조나 축조방식, 출토 유물 등에서 차이가 없고 원래 방형인데 훼손으로 인해 원형으로 남은 것인지 원래 원형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방형계가 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방후원형은 운평리 4지구 6호 외에도 송암리 88호, 송암리 106호, 송하리 2·5·6호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압록강 이남의 서북한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전방후원분을 무덤 붕괴 방지시설인 묘설(墓舌)을 덧붙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달리 북한 학계는 송하리 2호에서 전방부에서 강돌이 불에 의해 깨진 흔적이 발견된 것을 들어 제단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사우돌출형(四隅突出形)은 연무리 2호 외에도 운평리 4지구 8호 등이 확인된다. 사우돌출형은 적석 분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모서리 부분에 큰 돌을 놓아 강조한 것과 그 부분의 평면 면적을 넓게 하여 강조한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결합한 것 등 모두 세 가지의 방법이 확인되었다(리정남, 2000). 연무리 2호는 흙과 모래로 일정한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서로 다른 크기의 막돌을 쌓아 만들었다. 가장 겉면에는 비교적 큰 돌을 올렸고 분구의 가장 바깥 아래 단에 큰 돌을 연이어 놓아 열을 지었다. 일본의 사우돌출형 분구묘의 기원으로 꼽히기도 한다(리정남,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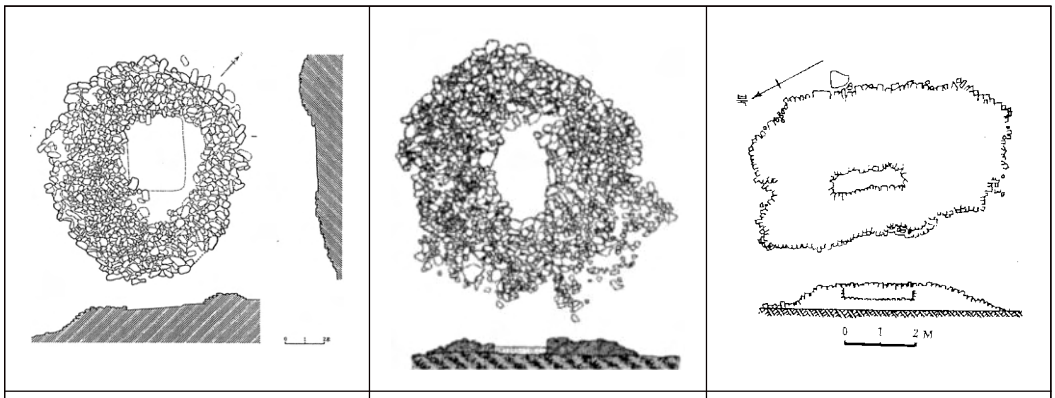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강돌을 덮어 분구를 형성하는 무기단 적석총의 경우, 축조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초창기에는 자연스럽게 원형의 분구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이후 돌이 흘러

내리는 것을 막고 크고 높게 쌓기 위해 점차 방형으로 변화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전방후원형이나 사우돌출형과 같은 특이한 구조의 형태도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무기단 적석총의 축조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강돌과 할석 등 자연 상태의 돌을 이용한다. 장주탁(2021)은 석재의 가공 정도나 적석 양상 등을 통해 깬돌 또는 약간의 할석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소형의 근세장방형·부정형 1차 가공석, 채석·할석 후 약간의 단면·입면 가공이 베풀어진 근장방형 중대형의 석재를 2차 가공석, 단면·입면 가공이 모두 베풀어져 장대형의 질석 형태로 가공된 3차 가공석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무기단 적석총의 경우 석재 가공도가 낮은 1차 가공석으로 쌓은 것이 대부분으로, 가공되지 않은 석재를 허튼층쌓기하였다.

2) 매장주체부

일반적인 적석총의 매장주체부는 분구에 마련[그림 3-③]되어 있는데 망강루 6호분[그림3-②]와 같이 초기 무기단 적석총의 경우 돌을 한두 겹 깐 후에 매장부가 마련되어 지표와의 간격이 크지 않다(강현숙, 2003). 그러나 망강루 1호분[그림 3-①]은 매장부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암반을 얕게 파서 조성하여 지하에 매장부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한 특수한 사례로 무기단 적석총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① 망강루 1호(王志刚 2016, 도1.25) ② 망강루 6호(王志刚 2016, 도1.25) ③ 양민 168호(李殿福 1980, 도2)

[그림 3] 무기단 적석총 매장주체부

무기단 적석총의 매장주체부는 석광이 대부분으로 석곽의 벽석이 가지런한 예가 드물고 천장석도 발견되는 사례가 없어, 석곽이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낙랑의 목관·목곽묘처럼 관정과 꺾쇠를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짜 맞추었을 가능성도 있고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30 동이전(東夷傳)」 고구려(高句麗)의 "有槨無棺"이라는 기록과 송하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관정과 꺾쇠를 고려하면, 석곽을 만들었기보다는 목곽이나 목관을 놓은 후 돌을 돌리고 덮었을 가능성이 크다(강현숙, 2003, 13). 한편, 압록강 이남 지역의 경우 분구 하나에 여러 곽이 있고 각 곽에 하나의 주검을 안치하는 다곽식도 확인된다.

4. 장법

고구려 적석총에서는 주로 화장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화장은 주검을 태움으로써 주검이 자유롭게 된다는 관념의 표현으로 북방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장속이다.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요동 지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던 습속으로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강현숙, 2021). 특히, 송하리 2호의 경우, 제단으로 추정되는 전방부 안에서 강돌이 불에 의해 붉은색을 띠고 깨진 것이 확인되어 제단에서 시신을 놓고 화장한 다음 세골하여 매장부로 옮겼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한편, 화장의 일종이기는 하나 매장부 안에 주검을 안치한 후 화장한 뒤 흙을 덮고 돌로 봉하는 방식도 나타난다. 이러한 습속은 요동반도 남단의 강상묘을 비롯하여 태자하 유역의 마성자 문화의 여러 동굴 무덤과 고인돌, 길림 남부지역의 개석식 고인돌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매장부 내부에서 화장하는 방법은 매장주체부 내의 부장품이나 인골, 심지어는 매장주체부가 파괴된다는 점에서 훼기 습속과 연결하기도 한다(王綿厚, 2001). 망강루 1호에서는 무덤에서 출토된 구슬 장식과 토기편에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고 높은 온도에서 화장이 이루어져 완전 산화된 상태의 회백색을 띤 인골편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훼기(毁器)는 부장품 일부를 훼손시켜 매장하는 습속으로 망강루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편 대부분이 무덤의 적석 틈새와 서북부 적석 분구 밖 원 지표상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강루 고분군에서 이러한 습속이 보편적으로 행해짐을 알 수 있다.

5. 부장품

무기단 적석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를 비롯하여 철제 무기, 청동제 및 철제 마구, 금제 및 유리제 장신구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부장품의 출토 상황을 알 수 있는 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남아있는 유물의 양도 적어 자세한 부장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표 3] 무기단 적석총 출토 유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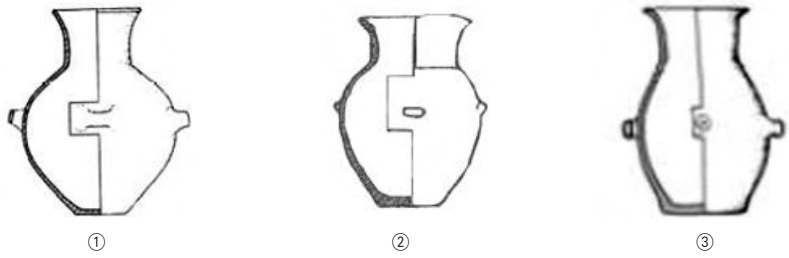
번호	지역	유적	유구	수습유물(점)	출전
1	혼강 유역	대협판구 고분	대협판구 고분	청동 화살촉(1), 청동 방울(2), 청동 거울(4)	梁志龍·王俊輝 (1994)

2		망강루 고분군	1호	사이장경호(3), 사이대부완(1), 심발(2), 양이심발(2), 호형토기(1), 철촉(2), 낚싯바늘(1), 구슬	李新全 (2009)
3			4호	사이장경호(3), 사이대부완(1), 동이(1), 금제이식(1), 동탁(1), 유리제 이전(3), 잔(1), 철촉(1), 낚싯바늘(1), 구슬, 인골편 등	
4			6호	사이장경호(2), 쇠낫(1), 철촉(1), 동제 운주(1), 철제 차관, 구슬, 낚싯바늘 등	
5		오도하자 고분	오도하자 고분	동제 팔찌(1), 동제 장식(1), 철촉(2), 석촉(2), 오수전(1), 화천(1)	梁志龍·王俊輝 (1994)
6		채아보 고분	채아보 고분	오수전(2), 동제 팔찌(1), 토기편	梁志龍·王俊輝 (1994)
10	압록강 중류 유역	연무리 고분군	2호	흑회색마연토기편, 미상 청동기, 미상 철기, 뼈구슬, 유리편, 짐승뼈, 어망추	리정남 (2000)
12		운평리 고분군	4지구 6호	동탁, 철도자, 철제 띠고리, 오수전	리정남 (1990)
13			4지구 8호	토기편, 환두대도, 철모, 철부, 비수, 미상 청동편	
14			4지구 9호	토기편	
16		하활룡 고분군	8호	양이호(1), 사이호(1), 고리자루칼(1), 철제 낫(1), 철제 교구(1), 철제 화살주머니(1)	集安县文物保管所 (1984)
17			20호	동제 장식(1), 환두대도(1), 방추차(1), 마노제 관옥(6), 동종(1), 어망추(1)	
18			22호	동제 단추장식(1)	
19			24호	갈색토기편	
20	장자강과 자성강 유역	등공리 고분군	1호	호, 갈색마연토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21			2호	호	
22		송하리 고분군	1호	갈색마연토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23			2호	갈색마연토기, 관정, 꺾쇠	
24			4호	관정	
25			5호	갈색마연토기, 관정	
26			6호	갈색마연토기, 검정항아리	

27	압록강 상류 유역	동강 고분군		토기 구연부편	吉林省长白山文化研究会(2004)
28		십이도구 고분군		철제 살포, 동제 팔찌, 환두도	
29		십사도구진 전참 고분군		토기 저부편, 토기 구연부편, 흑요석편, 인골	

1)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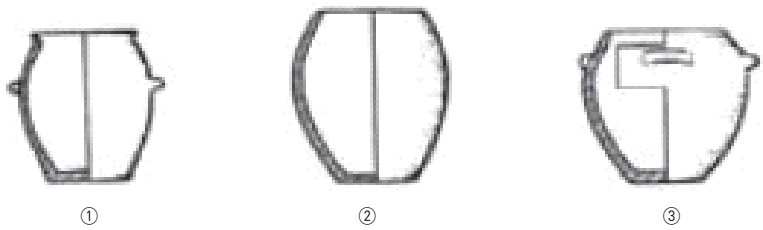
무기단 적석총에서 출토된 토기는 크게 호류와 심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호류에는 사이호(四耳壺), 양이호(兩耳壺)가 있으며, 파수가 있는 것 가운데 동체부 중앙에 횡위대상파수(橫位帶狀把手)만 부착한 것[그림 4-①]과 설형[舌形][파수만 부착한 것[그림 4-②], 설형 파수와 횡위대상파수를 대칭으로 부착한 것[그림 4-③]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위대상파수(縱位帶狀把手)가 부착된 심발이 오녀산성에서 다량 출토되었으나 고분에서는 횡위대상파수만 출토되어(양시은, 2021, 89쪽) 실용기와 부장품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망강루 고분군 출토 사이장경호는 유수 노하심 고분군의 중층 혹은 서풍 서차구 고분군 출토 토기와 기형, 제작기법이 유사하여 부여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王綿厚, 2009).



①망강루 1호 ②망강루 4호 ③망강루 6호

[그림 4] 무기단 적석총 출토 호류

심발은 파수가 달린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뉜다. 파수가 있는 것 중에서는 파수가 2개 달린 양이심발(兩耳深鉢)이 있고 혼적형 파수 4개가 달린 심발이 있다. 양이심발[그림 5], 심발[그림 5-②]은 유수 노하심 2기층에서 확인되었으며, 설형 파수가 4개 있는 심발[그림 5-③]은 신빈 왕청문 용두산 대석개묘, 환인 광복촌(光復村) 용두산 대석개묘에서 출토되었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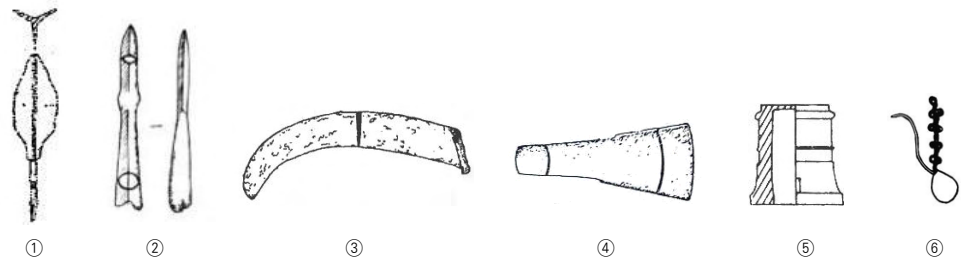
망강루 1호 출토 심발형 토기

[그림 5] 무기단 적석총 출토 심발류

2) 금속기

무기단 적석총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금속기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망강루 1호에서 출토된 삼익형 촉[그림 6-①]은 신호용으로 동일한 유물이 서풍 서차구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철모는 철촉 다음으로 많이 출토되며, 경부가 양 갈래로 갈라진 연미형이 다수이다. 연미형 철모[그림 6-②]는 부여 유수 노하심 중층 목관·목곽묘에서 확인된 바 있다(강현숙, 2013). 또한 망강루 고분군에서 수습된 철제 차축두(車軸頭)[그림 6-③]도 노하심 출토의 2형식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데 전형적 한대(漢代) 형식이다. 더불어 하활룡 8호분에서 낫과 화살 주머니[그림 6-④, ⑤]가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공반 관계는 부여 유수 노하심 중층 56호분에서 확인된 바 있다(강현숙, 2013). 특히, 금기(金器)는 망강루 4호분의 금제 이식[그림 6-⑥]이 있다. 서차구, 노하심 유적에서 나온 것과 흡사해 고구려와 부여 문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유물(李新全, 2009)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금속기에서 확인되는 한계 유물은 문헌 기록에 등장하듯이 부여와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망강루 고분군이 부여의 묘제인 토광묘와 전혀 다른 형식인 무기단 적석총을 사용한 것은, 당시 환인 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던 돌무덤 전통을 흡수한 결과로 볼 수 있다(양시은, 2021, 123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① 망강루 1호 출토 삼익형 촉 ② 운평리 4지구 8호 출토 철모 ③ 하활룡 8호 출토 철겸 ④ 하활룡 8호 출토 화살주머니
⑤ 망강루 6호 출토 철제 차축두 ⑥ 망강루 6호 출토 금제 이식

[그림 6] 무기단 적석총 출토 각종 금속기

Ⅲ. 요동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돌무덤 검토

요동 지역 초기철기시대의 돌무덤인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적석묘는 고구려 국가 형성 이전에 그 지역에 존재했던 묘제로 적석총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특히,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 그리고 고구려 초기와 중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문화층이 확인되고 있어 고구려 초기 지역의 토착 집단에서 새로운 문화 수용과 변이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중심으로 요동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분포와 입지, 구조, 장법, 부장품에 대해 검토하겠다.

다만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 중하류의 봉성, 관전, 집안 등지에서 확인되는 석퇴유적은 주로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과도 형태인 중간형 동검(또는 요령식 세형동검)이 출토된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의 전환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적으로도 석관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고구려 적석총과 직접적인 관련을 상정하기 어려워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 적석부가 지석묘(積石附加 支石墓)

1) 분포현황 및 입지

적석부가 지석묘는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적석부를 넓게 시설한 무덤(노혁진, 1986)으로 묘역식 지석묘(墓域式支石墓), 구획묘(區劃墓)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송호인(2020)은 묘역부가(墓域附加) 지석묘(支石墓)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세부 속성으로 부석형 묘역을 설정하고 적석형, 포석형(布石形), 즙석형(葺石形)으로 구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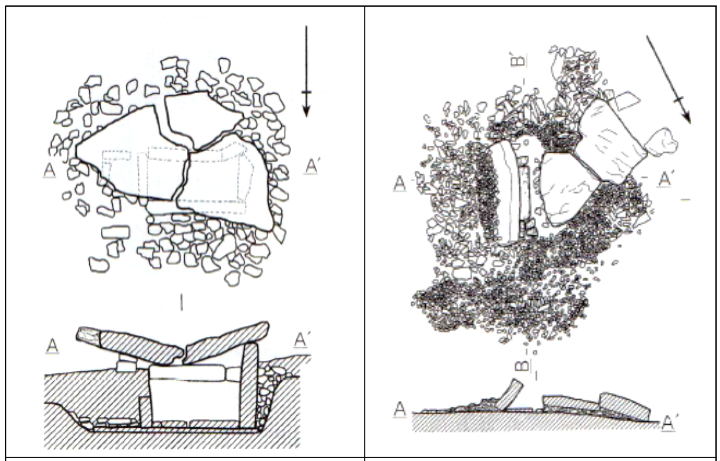
적석부가 지석묘는 요령성 남부의 요동반도 즉, 요하 이남의 지류, 요령성 동부와 북부에 주로 분포한다. 이 중 적석부가 지석묘는 무순(撫順) 산용(山龍) 유적, 무순 하협심(河夾心)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적은 모두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다.

무순 산용 유적은 요령성 무순시 무순현 구병향(救兵鄕) 산룡촌에 위치한다. 지석묘를 비롯한 7기의 무덤이 확인되었고, 1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2호는 지석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석 위로 적석부를 쌓아 매장부를 보호하고 묘역을 조성하였다. 연대는 춘추 말~전국 초이다(하문식, 2008 ; 2014 ; 華玉冰, 2011).

무순 하협심 유적은 무순시 장당향(章黨鄕) 고려영자촌(高力營子村) 철배산(鐵背山)의 서쪽 산기슭에 위치한다. 4기의 지석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2기의 석관묘가 배치되어 있다. 완전히 동일한 축조 양식을 가진 지석묘가 서로 근접 배치되어 있고 4기 모두 동서 횡렬로 방향성을 보이며 열상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석묘군 전체가 짧은 시간 내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하문식, 2008 ; 2014 ; 華玉冰, 2011; 오강원, 2012).

2) 요동 지역 초기철기시대 적석부가 지석묘의 특징

적석부가 지석묘는 기존 지석묘와는 달리 주변부에 적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석부의 평면 형태는 방형 또는 부정형으로 적석부의 기능은 매장부를 보호하는 역할(산용 1·2호)과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하협심 1~4호)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① 무순 산용 2호(華玉冰 2011) ② 무순 하협심 1호(華玉冰 2011)

[그림 7] 적석부가 지석묘 평·단면도

매장부의 위치는 산용 1·2호는 반지하식, 하협심 유적은 지상식으로, 형식은 지석묘와 같은 석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용 2호는 남벽에서 불에 탄 흔적과 함께 불에 탄 두개골 파편이 발견되었고, 하협심 2호는 불에 탄 인골이 발견되어 화장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① 하협심 2호 출토 청동 말종방울(華玉冰 2011) ② 하협심 4호 출토 토기편(華玉冰 2011)

[그림 8] 무순 하협심 고분군 출토품

하협심 2호에서는 청동 말종방울(銅鈴)이 출토되었는데, 서풍 서차구, 객좌(喀左) 노야묘(老爺廟), 건평(建平) 고산자(孤山子), 유수임자(楡樹林子), 신빈 용두산 무덤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동령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하협심 4호에서는 종위대상파수와 설형 파수편이 출토되었다.

2. 대석개묘(大石蓋墓)

대석개묘는 지석묘, 적석묘와 함께 요동 지역을 대표하는 묘제 중 하나로, 석개묘(石蓋墓)

또는 대개석묘, 개석식(蓋石式) 지석묘로도 불린다. 무덤은 지하에 마련된 묘실을 덮개돌로 덮은 구조이다. 중국학계에서 쌍방 6호가 조사된 것을 계기로 1980년 許明綱과 許玉林에 의해 '대석개묘(大石蓋墓)'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탁자식 고인돌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묘제로 석개토광묘, 석개석광묘, 석개석관묘로 분류하였다. 1981년 許明綱과 許玉林은 대석개묘란 지석묘의 핵심적 속성인 지석이 없고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있는 무덤으로 탁자식 지석묘와 별개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華玉冰(2011)은 석붕과 대석개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각 용어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재분류하였다[표 4].

본 논문에서는 華玉冰의 형식분류안을 일부 받아들여 지석묘는 지상에 매장부가 있고 모난돌이나 판자돌을 세우거나 쌓아 만든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대석개묘는 매장부가 지하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요동 지역 석붕 형식분류안(華玉冰, 2011)

유형				특징
석붕	제사석붕			석붕무덤과 유행지역·연대가 같으나 무덤의 기능이 없는 제사 건축
	무덤석붕	석붕무덤	입지형	매장부가 지상에 있으며, 판자돌을 세운 것
			위체형	매장부가 지상에 있으며, 모난 돌이나 판자돌을 쌓아서 만든 것
		개석무덤	개석형	매장부가 지하에 위치하며, 덮개돌이 매장부의 덮개돌이 되는 것
			정석형	매장부가 지하에 위치하며, 덮개돌이 표지 기능만 하는 것

1) 분포현황 및 입지

요동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석개묘는 총 202기로, 요령성에 134기, 길림성에 68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태용, 2011). 무덤의 입지는 산마루, 산 능선, 구릉지, 산비탈, 산기슭, 산하대지 또는 평지 등에 자리하며, 산마루, 능선, 구릉에 축조된 것이 가장 많아 주변을 잘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천산산맥 이북의 대석개묘는 요동반도 서남부와 동남부 해안과 가까우며, 천산산맥 이남, 화전(華甸)·반석(磐石)지역의 대석개묘는 대부분 산마루나 그 주변에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유태용, 2011, 87-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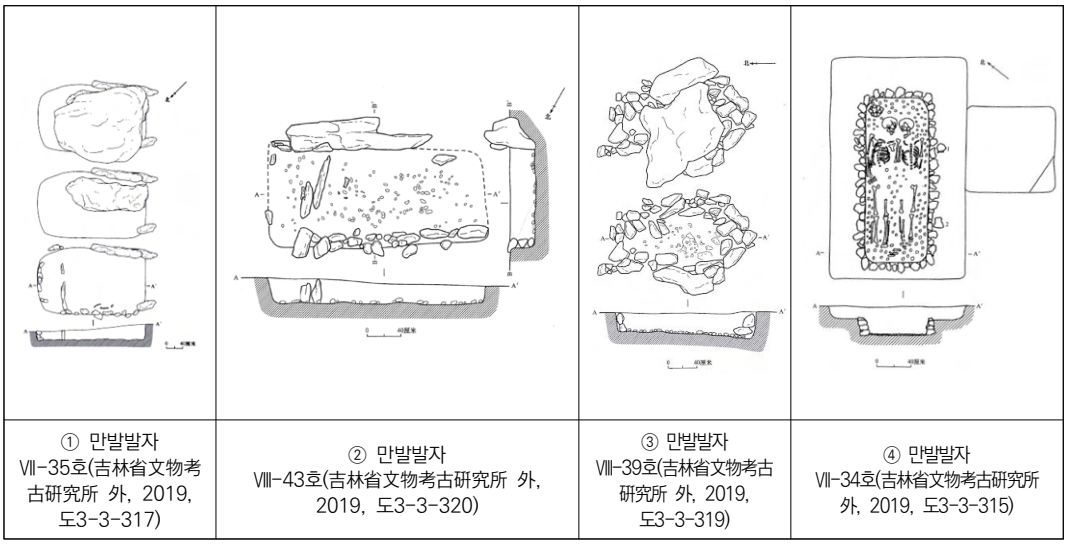
동풍(東豊) 조추구(趙秋溝) 유적은 동풍현 대양진(大陽鎭) 보산촌(寶山村)에 위치하며 산 능선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동풍 삼리(三里) 유적은 또한 동풍현 대양진 삼리촌 서북 산기슭에 7기의 무덤이 능선을 따라서 약 300m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화전 서황산둔(西荒山屯) 유적은 화전시 횡도하자향(橫道河子鄕) 중우촌(中友村)에 있다. 3개 지점에서 8기의 무덤과 2기의 무덤구덩이가 조사되었고 산 정상과 기슭에 위치한다.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통화시 금창진(金廠鎭) 약진촌(躍進村)에 있는데, 혼강 남안의 지세가 상당히 가파른 산비탈에 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제3기 문화층(청동기시대 후기)에서는 수

혈토갱묘 21기, 석관묘 11기, 대석개묘 4기가 있다. 제4기 문화층(초기철기시대)에서는 석관묘 3기, 석곽석관묘 2기, 대개석적석묘(大蓋石積石墓) 1기, 무단석광적석묘(無壇石壙積石墓) 1기가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21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 이종수, 2020).

2) 요동 지역 초기철기시대 대석개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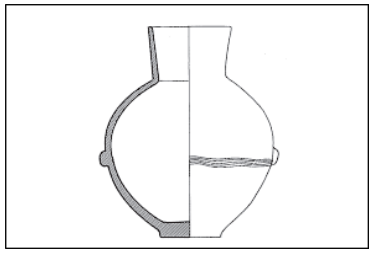
① 만발발자 Ⅶ-35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3-317)	② 만발발자 Ⅷ-43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3-320)	③ 만발발자 Ⅷ-39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3-319)	④ 만발발자 Ⅶ-34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3-315)

[그림 9] 대석개묘 평·단면도

만발발자 유적의 대석개묘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매장부 구조와 축조에 따라서 세 형식으로 구분된다. A형 대개석묘는 격벽이 있는 이른바 서단산형 석관을 매장부로 한 것으로 만발발자 유적의 Ⅶ-35호[그림 9-①]와 Ⅷ-43호[그림 9-②]가 포함된다(강현숙. 2021, 163쪽). 특히, Ⅶ-35호에서 출토된 집선횡선문대 장경호[그림 10]는 심양 정가와자 6512호 무덤의 장경호와 미송리형 토기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어, 연대를 기원전 5~4세기로 비정해 볼 수 있다.

B형 대개석묘는 지하 매장부는 석관묘와 같고, 북한의 침촌리형 지석묘와 같이 덮개돌 주위에 돌을 돌렸다. Ⅷ-39호[그림 9-③]의 지하 매장부는 석관묘와 같으며 인골과 부장품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에서는 천장(遷葬)한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C형 대개석묘는 2단 굴광을 한 후 하단에 석관을 만든 이단 굴광 대개석묘로 Ⅶ-34호[그림 9-④]이다. 석관의 장벽 한쪽에 별도로 마련된 부곽이 있다. 석관에는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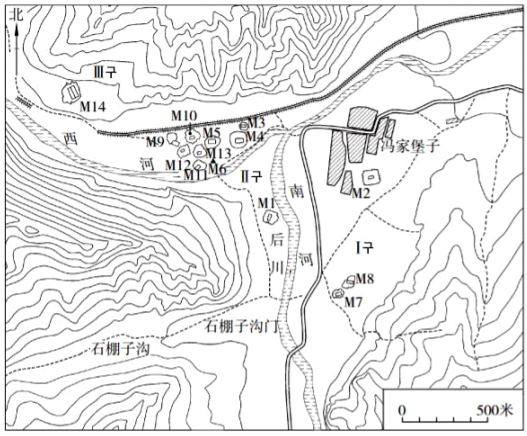


[그림 10] 만발발자 Ⅶ-35호 출토 장경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3-318)

로 보이는 어른의 주검을 앙신직지장(仰身直肢葬)하고 동쪽의 부곽에는 바닥돌 위에 화장된 인골이 다량으로 쌓여 있는데 이는 용두산 2호와 흡사하다. 화장한 다음 뼈를 부위별로 찾아 한곳에 모아 두는 간골 화장은 독특한 장례 습속으로(하문식, 2014, 31쪽) 만발발자 유적 Ⅶ-34호, Ⅶ-35호에서도 확인되었다.

3. 대석개적석묘(大石蓋積石墓)

1) 분포현황 및 입지



[그림 11] 풍가보자 고분군 분포도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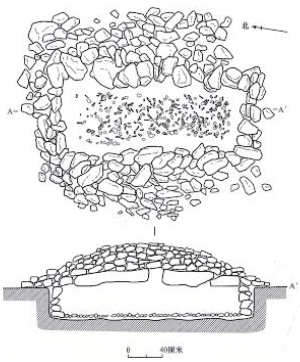
대석개적석묘는 매장부 위에 적석 분구가 있거나, 덮개돌 주위로 적석부를 더 하는 것이다. 대석개적석묘는 고구려 적석총과 대석개묘 사이의 중간 단계로 보고 대석개적석묘의 개석이 소멸하면서 적석총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견해(李新全, 2009 ; 華玉冰, 2011)와 대석개묘·대석개적석묘·적석총이 병존하였다고 보는 견해(여호규, 2011 ; 김종은, 2017)가 있다.

환인 망강루 고분군과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환인현 화래진(華來鎭) 풍가보자촌 서쪽 강기슭에 위치하는 풍가보자 고분군 [그림 11]의 경우는 묘역식 대석개적석묘 다수와 고구려 기단식 적석총, 석실적석총으로 구성되어 대석개적석묘와 적석총의 계기적 관련성을 보여준다(華玉冰, 2011 ; 李新全, 2009 ;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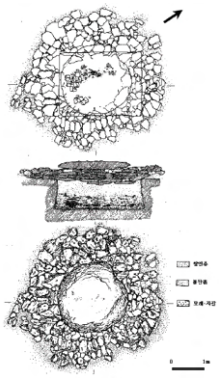
요령성 무순시 신빈현 왕청문진에 위치한 신빈 왕청문 용두산 유적에는 용두산의 낮은 산등성이에 서남-동북 방향으로 3기의 무덤이 배열되어 있다. 3기의 무덤은 모두 매장부의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고 단면 형태는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은 주머니 모양이다. 덮개돌은 원형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데 매장부의 넓이가 덮개돌보다 넓어 다 덮지 못하고 있다.

2) 요동 지역 초기철기시대 대석개적석묘의 특징

대석개적석묘와 대석개묘는 적석이 부가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입지와 매장부의 구조 등은 유사하다. 대석개적석묘에서 적석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 덮개돌의 역할이 퇴화하여 표지 역할만 하는 분구식 대석개적석묘와 대석이 덮개돌의 역할을 하며 적석부는 묘역을 표시하는 기능만 하는 묘역식 대석개적석묘가 있다.



① 만발발자 Ⅷ-38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4-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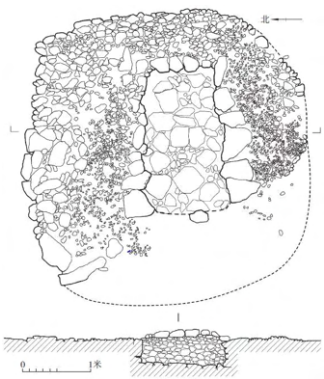


② 신빈 용두산 3호(하문식, 2008, 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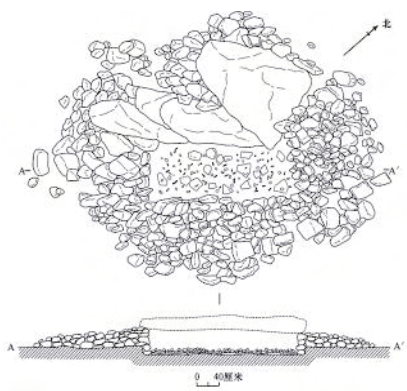
[그림 12] 만발발자 Ⅷ-38호와 신빈 용두산 3호 평·단면도

만발발자 Ⅷ-38호[그림 12-①]는 분구식 대석개적석묘로 지하에 석관을 만들고 덮개돌을 덮었으며, 그 위에 다시 돌을 쌓아 적석 분구를 만들었다. 신빈 용두산 3호[그림 12-②]는 매장부가 길이 2.53m, 너비 2.3m, 높이 1m로 다른 무덤보다 크며, 덮개돌은 1.7~1.9m로 매장부가 덮개돌보다 큰 형태이다. 매장부 바로 위에 돌무지를 쌓아 덮개돌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 그 위에 표지로서의 덮개돌을 얹은 것으로 추정된다(이종수, 2005, 34-36쪽).

묘역식 대석개적석묘는 풍가보자 4호[그림 13-①]가 있다. 풍가보자 4호는 덮개돌이 확인되지 않아 무기단 적석총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석개적석묘로 추정되는 3호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고 매장부가 석관이고 지하에 조성되어 있어 대석개적석묘에 가까우며 덮개돌이 유



① 환인 풍가보자 4호(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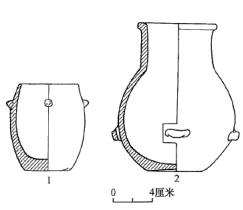
② 만발발자 V-41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4-110)

[그림 13] 환인 풍가보자 4호 및 만발발자 V-41호 평·단면도

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대석개적석묘로 판단하였다. 만발발자 Ⅴ-41호[그림 13-②] 역시 묘역식 대개석묘이다. 덮개돌이 매장부 바로 위에 있으며 적석 시설은 묘역이나 보호의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하문식, 2010, 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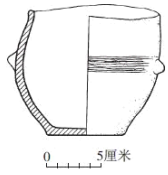
대석개적석묘도 대석개묘와 마찬가지로 화장을 채택하고 있다. 신빈 용두산 2호는 2개층으로 나뉘어 여러 차례 화장된 것이 밝혀졌으며, 출토된 두개골로 보아 최소 7명이 묻힌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화장한 후 갈비뼈를 인위적으로 한곳에 모아 둔 간골 화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간골 화장은 길림 남부지역의 대석개묘에서 널리 조사되고 있고 만발발자 Ⅴ-36호(석곽석관묘), 만발발자 Ⅶ-34호·Ⅶ-35호(대석개묘), 간구자 고분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풍가보자 5호는 매장부 안의 채움돌이 불에 탄 흔적이 명확하고 매장부 안의 인골은 2차로 나누어 겹쳐 매장된 것이 확인된다.

부장품은 대부분 토기인데, 신빈 용두산 고분군과 통화 만발발자 유적 출토품 간에 유사성이 확인된다. 특히 만발발자 Ⅷ-38호에서 출토된 사이심발(四耳深鉢)과 호[그림14-①]는 용두산 2호 출토품[그림14-②]과 매우 유사하며, 풍가보자 5호와 8호에서 출토된 심발[그림 14-③, ④]은 적석묘인 만발발자 Ⅶ-37호 출토품[그림49-①,②]과 유사하다(양시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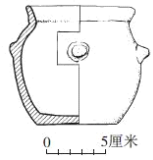


① 만발발자Ⅷ-38호 출토 토기(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4-109)

② 용두산 출토 토기(하문식, 2008, 도13; 하문식, 2019, 사진7)



③ 풍가보자 5호 출토 심발(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도19)



④ 풍가보자 8호 출토 심발(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도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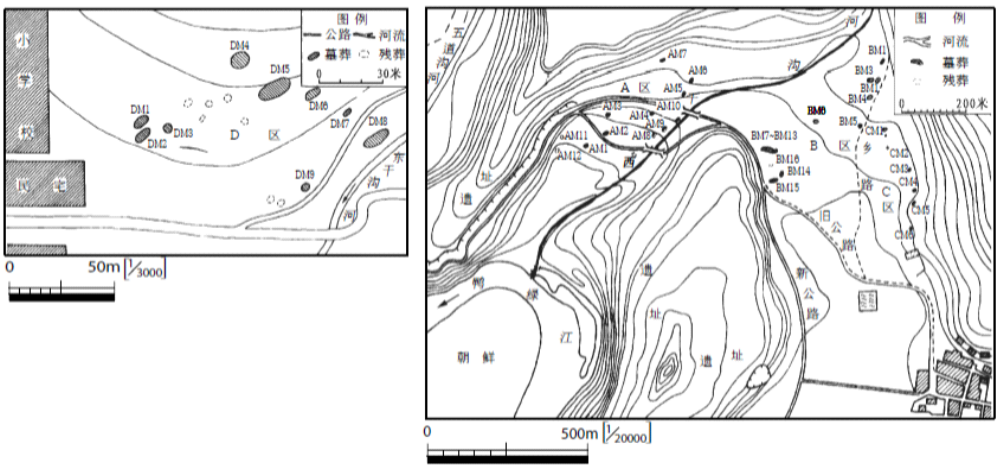
[그림 14] 대석개적석묘 출토 각종 토기

4. 적석묘(積石墓)

1) 분포현황 및 입지

요동 지역 초기철기시대 적석묘는 적석 분구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을 뿐, 세부 구조와 특징에서는 유적 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유적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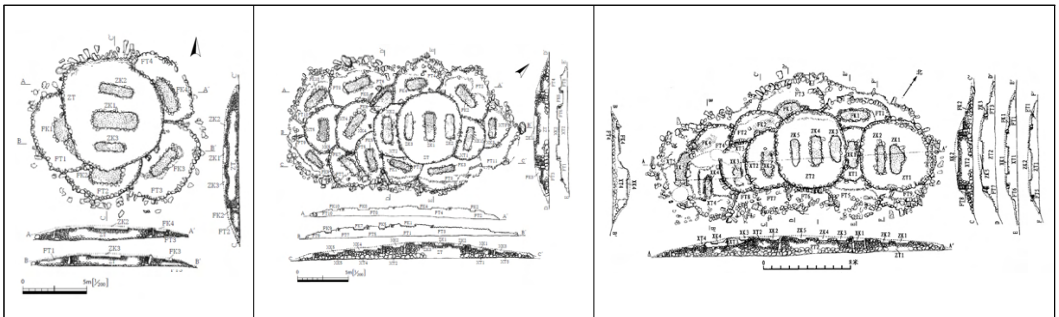
한편,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는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으나 둘은 시·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직접적 기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발굴 성과가 축적되어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가 아닌 압록강 유역 일대의 적석묘를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



[그림 15] 장백 간구자 고분군 분포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도3·2)

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는 제외하고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혼강과 압록강 유역의 적석묘만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장백 간구자 고분군[그림 15]은 길림성 백산시 장백현 십사도구진 간구자촌에 위치하며, 압록강 지류인 동·서 간구하(干溝河) 양안의 하곡 충적지에 분포해 있다. 분포 지역에 따라 4구역으로 나뉜다. A구역은 서간구하 북안의 충적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12기가 동서 두 열로 분포한다. B구역은 서간구하 동남쪽 충적지에 분포하는데, 17기가 동북에서 서남으로 배열되어 있다. C구역은 농로(農路)를 사이에 두고 B구역과 마주 보고 있는데, 산기슭 아래에 6기가 남북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D구역은 간구자촌 동편에 분포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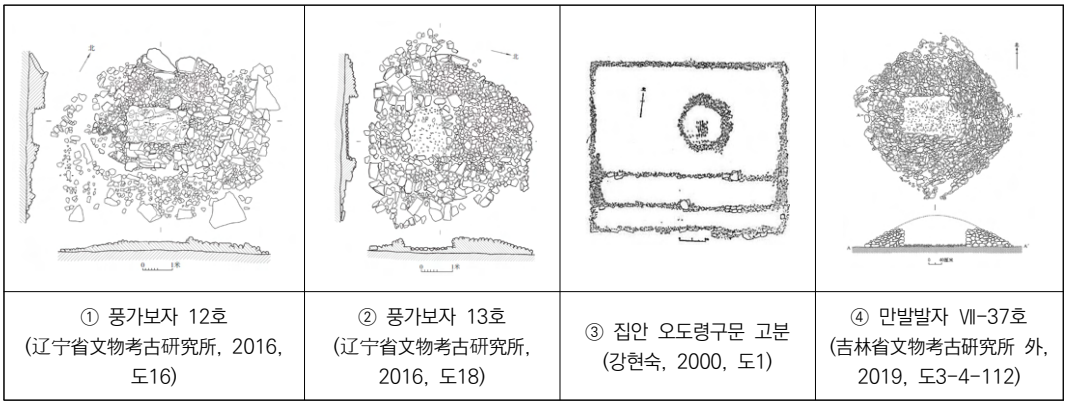


① 간구자 AM4호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도7)	② 간구자 BM2호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도8)	③간구자 AM2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도5)

[그림 16] 간구자 AM4·BM2·AM2호 평·단면도

간구자 고분군은 다수의 고분이 중첩된 연접묘로 연접 방식은 크게 3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접 방식은 제1형식[그림16-①]→제2형식[그림16-②]→제3형식[그림16-③] 순으로 변화한다. 이는 고분군의 분포 양상과도 일치해, 산 가까운 곳에 조성된 곳이 가장 이르고, 강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고분이 조성 연대가 더 늦다.

풍가보자 12호[그림17-①]는 Ⅱ구역 중부에 있으며, 동쪽으로 약 5m 떨어져 13호[그림17-②]가 있다. 무덤 바깥 서쪽 부근에서 큰 석판 두 개가 발견되어 이를 덮개돌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매장부가 지상에 있어 대석개묘나 대석개적석묘와는 다르다. 집안 오도령구문 고분[그림17-③]은 평면 장방형에 한 변의 길이가 14m, 각 계단은 1.3~1.85m씩 들여쌓았으며, 높이는 약 80cm이다(张雪岩, 1981 ; 강현숙, 2000 ; 동북아역사재단, 2021). 만발발자 Ⅶ-37호[그림17-④]는 만발발자 유적 4기 문화층으로 비정된 무덤 중 가장 큰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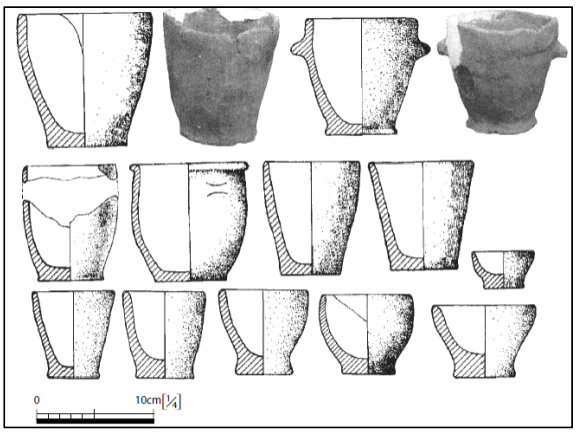
① 풍가보자 12호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도16)	② 풍가보자 13호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도18)	③ 집안 오도령구문 고분 (강현숙, 2000, 도1)	④ 만발발자 Ⅶ-37호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4-112)

[그림 17] 풍가보자 12·13호와 오도령구문 고분 및 만발발자 Ⅶ-37호 평·단면도

2) 요동 지역 초기철기시대 적석묘의 특징

간구자 고분군의 평면은 원형, 반원형, 부채꼴로 묘단 아래에 잔돌을 깔아 공동의 묘역을 설정한 다음, 중앙에 원형의 주묘단(主墓壇)을 축조하고, 여기에 잇대어 반원형의 속묘단(續墓壇)이나 부채꼴의 부묘단(附墓壇)을 연이어 겹겹이 조성하였다. 다만, 주묘단뿐 아니라 속묘단과 부묘단도 별도로 묘단을 조성했고, 각 묘단의 가장자리를 큰 돌로 층층이 쌓아 보호석을 둘렀다는 점에서 각 묘단은 개별 무덤의 성격이 강하다. 간구자 고분군은 무기단 적석총의 기원으로 주목되고 있는 하지만 간구자 고분군은 다수의 분구가 중첩으로 연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석총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로, 기원으로 비정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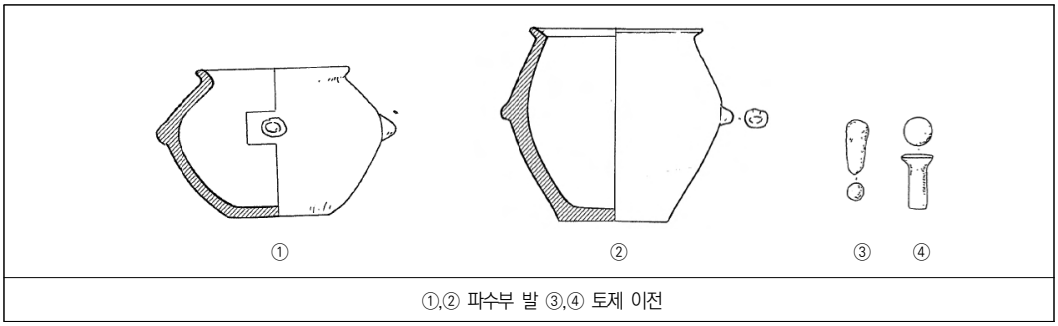
간구자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그림 18]는 기본적으로 부장을 위해 소형으로 제작하였으며, 모래가 혼입된 조질 태토에 갈색 계통이 주를 이룬다. 손으로 제작하여 토기의 두께와 규격은 일정하지 않다. 문양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체로 기벽을 잘 정면하였다. 토기(罐)는 39



[그림 18] 간구자 BM2호 출토 각종 토기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도11·12 수정 후 인용)

점이 출토되었는데, 토기 중 일부는 만발발자 유적 제4기와 제5기의 소형토기류(컵형 토기, 잔) 및 완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양시은, 2021, 74쪽).

만발발자 Ⅶ-37호의 매장부는 분구 중앙에 위치하며, 매장부 바닥에 황갈색 점토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잔돌을 깔았다. 돌이 깔린 매장부에 주검과 부장품을 안치한 후 불을 붙이고 흙을 덮고 깨진 돌로 묘광을 봉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다인 화장묘로 판단하였지만 토제 이전[그림19-③, ④] 한 쌍인 점으로 보아 단인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강현숙, 2021, 168쪽). 토기[그림19-①, ②]는 적석 사이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동체 중앙에 흔적형 파수가 있는 기종으로 대개석적석묘나 석곽석관묘 출토 토기보다는 조금 늦다. 풍가보자 5호(대석개적석묘)에서 출토된 심발과 형태가 유사하며 연대는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된다(양시은, 2021, 66쪽).



[그림 19] 만발발자 Ⅶ-37호 출토 유물(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4-109)

Ⅳ. 요동지역 돌무덤과 적석총 출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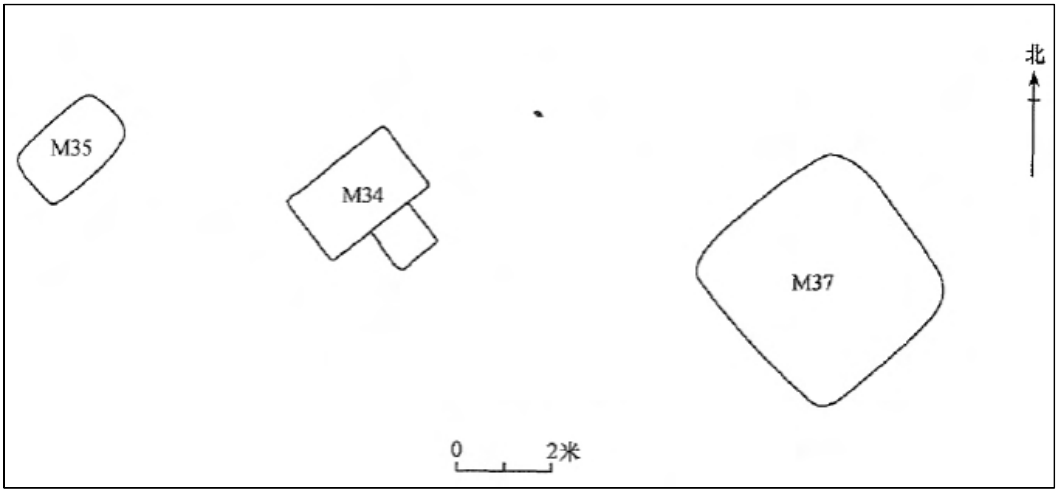
고구려 발생지인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서 보이는 초기철기시대의 돌무덤은 같은 지역에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특성상 고구려 적석총의 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고구려 초기 무기단 적석총은 산이나 구릉의 정상부 혹은 강변 평탄지에 입지하고 적석 분구의 평면은 원형, 방형 등의 형태를 하고 있다. 자연 강돌 또는 할석인 1차 가공석을 사용하여 조성하였으며, 매장부는 대부분 지상에 위치하나 초기는 지면에 위치하기도 한다. 남아있는 매장부의 시설은 석광이나 석곽이 확인된다. 또한 단인 화장하였

으며, 매장부 내부에서 불을 질러 화장하는 사례도 있다. 부장품을 훼기하기도 한다.

[표 5]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과 초기철기시대 돌무덤 비교

		무기단 적석총	적석부가 지석묘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적석묘
입지		산 정상부, 강변	산기슭	산기슭	충적지, 산기슭	충적지, 산기슭
분구	평면 형태	원형, 방형, 전방후원형 등	방형, 부정형	-	원형, 부정형	원형, 방형
	석재	자연 강돌, 할석	자갈돌, 덮개돌	덮개돌	자갈돌, 덮개돌	할석, 강돌, 산돌
매장부	위치	지면, 지상	지상	지하	지하, 반지하	지상
	시설	석광, 석곽	탁자식	석관	석관, 토광	석광, 석곽
	형식	단곽, 다곽식 단인장	단곽식 단인장	단곽, 다곽식 다인장	단곽식 다인장	단곽, 다곽식 단인장
장법		화장, 훼기	화장, 훼기	화장, 훼기	화장, 훼기	화장

앞서 언급한 대로 고구려 적석총은 지상에 매장주체부를 마련하고 돌로 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적석을 한 초기철기시대 무덤으로는 적석부가 지석묘・대석개적석묘・적석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적석부가 지석묘[그림7-②]는 매장부가 지석묘에 가까운 형태로, 석광의 형태인 적석총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대석개적석묘는 매장부가 지하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만발발자 Ⅷ-38호[그림12-①]는 매장부 바로 위에 덮개돌을 덮고 그 위에 적석부를 얹은 것으로, 적석 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고구려 적석총과 외관과 기능이 흡사하다. 적석묘는 무기단 적석총과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유사하고 출토되는 유물도 흡사하다. 특히, 만발발자 Ⅶ-37호[그림17-④]는 대석개묘인 만발발자 Ⅶ-34호 바로 옆에 축조[그림 20]되어 있고, 풍가보자 5호(대석개적석묘)에서 출토된 심발과 Ⅶ-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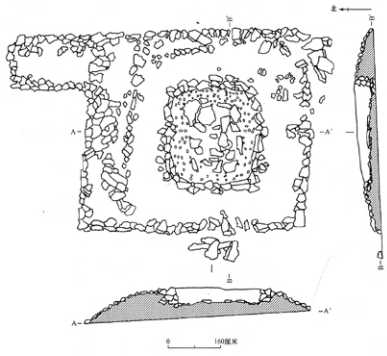


[그림 20] 만발발자 유적 Ⅶ구역 무덤 분포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2-1-10)

호의 심발의 형태가 유사하다. 따라서 대석개묘·적석묘·대석개적석묘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같은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화장은 요동지역의 보편적인 습속으로 모든 묘제에서 발견된다. 매장부에서 바로 불을 붙이는 방법과 외부에서 화장하고 다시 부장하는 방식 등과 같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화장은 요동지역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장법이다.

한편, 현재 고구려 적석총은 주로 한 사람만을 매장하는 단인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고구려 중기 기단 적석총인 만발발자 Ⅵ-29호[그림21-①]에서 다인 검골 화장[그림21-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다인 화장이 고구려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① 만발발자 Ⅵ-29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도3-5-67)

② 만발발자 Ⅵ-29호 매장부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사진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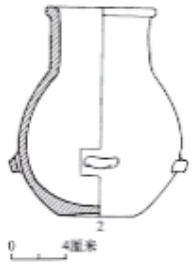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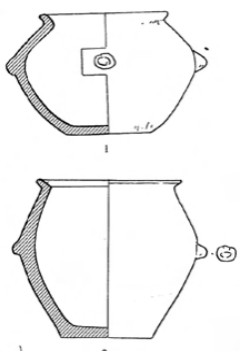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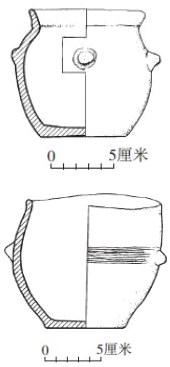
[그림 21] 만발발자 Ⅵ-29호 평·단면도 및 매장부 사진

부장품에서 망강루 고분군에서 출토된 심발과 사이장경호는 풍가보자 5호·8호 출토 심발, 만발발자 Ⅶ-37호의 심발, 용두산 고분군과 만발발자 Ⅷ-38호(분구식 대석개적석묘)에서 출토된 사이장경호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강현숙, 2021, 1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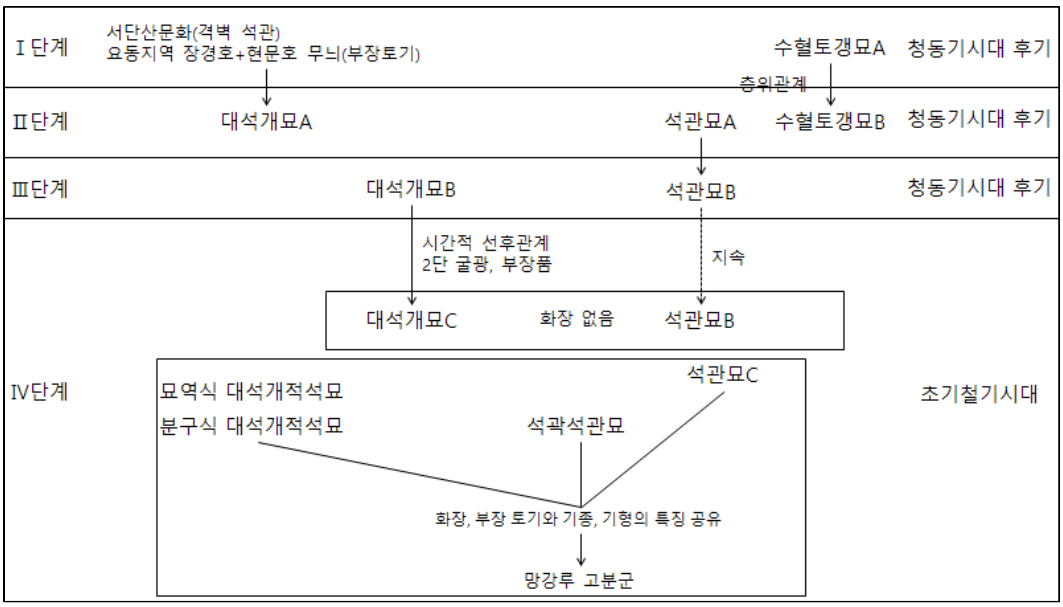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초기철기시대 돌무덤 간에도 토기 형식이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용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고배는 대석개묘인 만발발자 Ⅶ-34호에서도 출토된 바 있고, 풍가보자 고분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간구자 고분에서 실사용한 토기가 아닌 소형 토기를 부장하였던 것은 만발발자 4기와 5기 문화층에 해당하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소형토기류(컵형토기, 잔) 및 완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며(양시은, 2021, 74쪽), 이러한 양상은 신빈 용두산 고분군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표 5]. 특히, 오녀산성에서 청동기시대 출토 토기와 고구려 전기 토기가 흡사한 양식이 확인되고, 일부 속성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양시은, 2007, 81쪽), 이러한 사실은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이 서로 다른 묘제를 보이는 와중에도 토기 양식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공유·계승하고 있으며, 이

러한 토착적 전통이 고구려 국가 형성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양시은, 2021, 89쪽).

[표 6]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과 초기철기시대 돌무덤 출토 토기

사이장경호			
	만발발자 Ⅷ-38호	신빈 용두산 고분군	망강루 고분군
심발			
	만발발자 Ⅶ-37호	풍가보자 고분군	망강루 고분군

이와 관련하여 만발발자 유적은 고구려 적석총으로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고구려 중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문화층이 확인된 다층위 유적이다. 만발발자 유적의 묘제는 일관된 장법이나 묘제의 규칙을 찾아보기 어렵다. 토광묘에서 석관묘와 대석개묘로 변화하는 경향성은 파악되지만, 시신의 안치 방법이나 두향(頭向)도 일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형식도 다르다. 그런데도 각 묘제는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며 서로 중복 없이 축조되어 있어(강인욱, 2021, 21-24쪽) 만발발자 유적은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큰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느슨하게 연결된 사회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2] 만발발자 분묘의 종횡 관계(강현숙, 2021, 도11 수정 후 인용)

더불어 만발발자 유적은 3기 문화층(청동기시대 후기) 출토 토기의 형태와 양식적 전통이 유지된 채 4기 문화층(초기철기시대)으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4기 문화층에서 환인 망강루 6호, 환인 고력묘자 15·16호 출토품과 유사한 유엽형 철촉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속성이 확인된다.

이는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는 큰 틀에서 돌로 무덤을 만드는 전통과 토기 양식, 화장 풍습을 공유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묘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큰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느슨하게 연결된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초기철기시대의 물질문화가 고구려로 이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이 모둔곡(毛屯谷)에 이르러 재사, 무골, 묵거에게 성씨를 주고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거나[3], 비류국의 송양과 겨뤄 이긴 기록[4]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고구려 형성 과정에서 혼강과 압록강 일원에 다양한 토착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이다. 이러한 토착 세력은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대석개적석묘, 대석개묘, 적석묘를 다양한 형식으로 축조하였으며,

3) “朱蒙行至毛屯谷, 遇三人.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衣. 朱蒙問曰, “子等何許人也, 何姓何名乎.” 麻衣者曰, “名再思.” 衲衣者曰, “名武骨.” 水藻衣者曰, “名黙居.” 而不言姓. 朱蒙賜再思姓克氏, 武骨仲室氏, 黙居少室氏, 乃告於衆曰, “我方承景命, 欲啓元基, 而適遇此三賢, 豈非天賜乎.” 遂揆其能, 各任以事, 與之俱至卒本川.”(『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元年(紀元前 37))

4) “王見沸流水中有菜葉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獵徃尋, 至沸流國. 其国王松讓出見曰, “寡人僻在海隅, 未嘗得見君子, 今日邂逅相遇, 不亦幸乎. 然不識吾子自何而来.” 荅曰, “我是天帝子, 来都於某所.” 松讓曰, “我累世爲王. 地小不足容兩主. 君立都日淺, 爲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與之鬪辯, 亦相射以校藝, 松讓不能抗.”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元年(紀元前 37))

이후 주몽이 위의 세력을 통합하고 고구려를 형성한 것은 주변의 대석개적석묘, 대석개묘, 적석묘를 묘제로 사용하는 집단을 통합하고 적석총을 채택하여 발전시켜 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무기단 적석총의 출현을 고구려라는 국가의 출현으로 단순히 치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발발자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에 여러 유형의 무덤이 병존하고 있다가 등장한 묘제가 바로 적석묘(적석총)라는 점과 그 이후 다른 묘제가 축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구려 초기의 대표 유적인 환인 망강루 고분군의 경우 출토 유물 중 일부가 부여계로 밝혀져, 적석총 축조 집단이 부여계 유이민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망강루 고분군 출토 부장품의 계통 관계와는 별개로 환인 및 집안 일대의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적석 분구, 화장과 훼기 그리고 다수의 부장품은 분명 고구려 국가성립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묘제 및 물질문화와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적석총의 축조에 있어 부여계 유이민 문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에서부터 이어진 토착 집단의 영향도 큼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고구려 국가형성기에 등장한 무기단 적석총은 산이나 구릉의 정상부 혹은 강변 평탄지에 입지하고 적석 분구의 평면은 원형, 방형 등의 형태를 하고 있다. 자연 강돌 또는 1차 가공석을 사용하여 조성하였으며, 매장부는 대부분 지상에 위치한다. 남아있는 매장부의 시설은 석광이지만, 목관이나 목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단인 화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발발자 유적에서 다인 화장한 고구려 중기 기단 적석총이 확인되어 일부 다인 화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외부에서 화장하여 소골하는 형태도 확인되었고, 매장부 내부에서 불을 지르고 돌로 봉하는 화장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망강루 고분군에서 부장품을 고의로 훼손하여 묻은 것이 확인되어 부장품의 훼기 풍습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은 출토 유물로 볼 때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상류 인근의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을 조영하였던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혼란하던 초기철기시대 요동지역에는 적석부가 지석묘,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적석묘 등 돌로 만든 다양한 묘제가 공존하며 다양한 방식의 매장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토기 양식을 공유하고 화장을 보편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물질문화는 고구려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요동지역 유적 가운데 특히,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만발발자 유적의 3·4기 문화층은 고구려 국가 형성 직전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요동지역의

토착문화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만발발자 4기 문화층인 초기철기시대에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석곽석관묘, 석관묘가 병존하며 부장품의 양식과 화장과 같은 장례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큰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느슨하게 연결된 사회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적석묘(만발발자 Ⅶ-37호)는 요동지역의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간직하면서도 고구려 무기단 적석총과 가장 흡사한 형태로 고구려 적석총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지적되어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이 고구려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국가 형성 이전의 혼강과 압록강 유역에는 보편적으로 돌을 사용해 무덤을 축조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초기철기시대 돌무덤을 축조한 집단은 씨족 단위로 존재하면서 묘제를 통해 정체성을 지키고 토기 양식과 화장법을 공유하며 큰 틀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석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였으며, 적석묘의 등장 이후 다른 묘제들은 소멸하고 고구려의 적석총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4.05.31, 심사개시일: 2024.06.03, 게재확정일: 2024.06.10.]

【참고문헌】

(국문)

강인욱, 2021,「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동북아역사논총』71.

강현숙, 1999,「고구려 적석총의 등장에 대하여」,『경기사학』3.

강현숙, 2000,「고구려 형성과 기원전후한 시기 고구려의 성장」,『제1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강현숙, 2003,「고구려 고분」,『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강현숙, 2012,「고구려 적석총의 입지와 존재 양태의 의미」,『한국고대사연구』66.

강현숙, 2013,『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강현숙, 2021,「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동북아역사논총』71.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1,『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1,『북한 문화유적 발굴 개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조선고고연구 해제집1(1986~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조선고고연구 해제집2(2001~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종은, 2017,「압록강 유역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출현과 분포 양상의 성격」,『역사문화연구』61.

노혁진, 1986,「적석부가지석묘의 형식과 분포」,『人文社會科學篇』4.

동북아역사재단, 2020,『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선·원사시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08,『초기 고구려 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0a,『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선·원사시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0b,『고구려 통사 1-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a1,『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Ⅷ 혼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1b,『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Ⅶ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2a,『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Ⅰ압록강 중·상류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2b,『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Ⅱ집안 통구 분지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3,『고구려 통사 9-고구려 고고:유물』, 동북아역사재단.

東潮·田中俊明, 2008,『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리정남, 1990,「운평리 고구려무덤떼 제4지구 돌각담무덤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1990-1.

리정남, 2000,「고구려의 네모서리돌출형돌각담무덤에 대하여(1)」,『조선고고연구』2000-4.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009,『조선고고학전서』29.

송호인, 2020,「묘역부가지석묘;청동기시대의 의례·상징 매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호규, 2011,「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역사문화연구』39.
여호규, 2014,『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양시은, 2007,「중국 내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연구」,『중국사연구』50.
양시은, 2021,「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동북아역사논총』71.
오강원, 2004,「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文化의 形成過程」,『동북아역사논총』1.
오강원, 2012,「高句麗初期積石墓의 出現과 形成過程」,『고구려발해연구』43.
유태용, 2011,「遼東地方의 大石蓋墓에 대한 검토」,『고조선단군학』24.
이종수, 2005,「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 硏究 Ⅱ」,『선사와 고대』22.
이종수, 2020,「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야외고고학』37.
장주탁, 2021,「고구려 통구 고분군 3-5세기 계단적석총 축조기법 연구」,『고구려발해연구』69.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고구려의 고분 문화Ⅰ-한반도』, 진인진.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고구려의 고분 문화Ⅱ-길림성 집안시 통구 고분군』, 진인진.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고구려의 고분 문화Ⅲ-길림성·요령성 일대』, 진인진.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고구려·발해의 고분 문화-증보편』, 진인진.
지병목, 1997,「遼東半島와 鴨綠江 中.下流地域 積石墓의 관계-高句麗 積石墓의 기원에 관한 試論-」,『사학연구』53.
지병목, 2007,「高句麗 起源의 考古學的 考察」,『고구려발해연구』27.
최종택, 2006,「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 硏究」,『선사와 고대』24.
최종택, 2015, 고구려 고고학 연구 120년,『고구려발해연구』53.
하문식, 2008,「혼하유역 고인돌의 특이 구조와 성격」,『동양학』43.
하문식, 2010,「혼강 유역의 적석형 고인돌 연구」,『선사와 고대』32.
하문식, 2014,「중국 요북지역 고인돌의 성격」,『선사와 고대』40.
하문식, 2019,「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①-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백산학보』115.
하문식, 2020,「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③-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동양학』81.
許玉林, 하문식 역, 2019,『중국 동북지구 석붕 연구』, 사회평론 아카데미.

(중문)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a,「吉林长白县干沟子墓地发掘简报」,『考古』2003-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b,「吉林通化市万发拨子遗址二十一号墓的发掘」,『考古』2003-8.
吉林省长白山文化研究会, 2004,「鸭绿江上游右岸考古调查」,『东北史地』2004-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通化万发拔子遗址考古发掘报告』, 科学出版社.
金旭東, 1992,「东辽河流域的若干种古文化遗存」,『考古』1992-04.
李新全, 2009,「辽东地区积石墓的演变」,『学问』2009-1.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6,「辽宁桓仁县冯家堡子积石墓群的发掘」,『考古』2016-9.

王绵厚, 2001,「关于通化万发拨子遗址的考古与民族学考察」,『北方文物』2001-3.
王绵厚, 2009,「试论桓仁"望江楼积石墓"与"卒本夫余"一兼论高句丽起源和早期文化的内涵与分布」,『东北史地』2009-6.
王志敏, 2006,「通化江沿遗迹群调查」,『东北史地』2006-6.
梁志龍·王俊輝, 1994,「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博物館研究』1994-2.
肖景全, 2014,「新宾满族自治县近年来发现的高句丽积石墓」,『东北史地』2014-5.
式家昌, 1997,「抚顺山龙石棚与积石墓」,『辽海文物学』23.
集安县文物保管所, 1984a,「集安县上·下活龙村高句丽古墓清理简报」,『文物』1984-1.
集安县文物保管所, 1984b,「集安縣新發現的兩處高句麗墓群」,『博物館研究』1984-1.
张雪岩, 1981,「集安发现青铜短剑墓」,『考古』1981-5.

【Abstract】

The emergence of Stone-mound tombs in the early Goguryeo period and stone tombs in the Liaodong region

Park, Hyunju
(Seou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examines and compares the Stone-mound tombs of the early Goguryeo period and the early Iron Age stone tombs of the Liaodong region. The early Iron Age in the Liaodong region was a series of very chaotic situations, going through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replacement of Yan, Jin, and Han and the fall of Gojoseon. Due to the clash of various cultures, multiple tomb rites coexist at the same time in one site, and even for the same tomb rite, it is difficult to find consistent funeral rites or rules for tomb rites, like in tombs that use different funeral rites. These aspects are well reflected in the Tonghwa Manbalbalja site,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to look at cultural aspects from the Bronze Age through the early Iron Age to the mid-Goguryeo period.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ombs before the founding of Goguryeo found in the Liaodong region, including the ruins of Manbalbalja, and compares them with the structure of Goguryeo's early Stone-mound tomb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Goguryeo's early Stone-mound tombs had a certain connection with the early Iron Age stone tombs of the Liaodong region, and that as other tomb systems disappeared, Stone-mound tombs were mainly used and were unified into Stone-mound tombs after the founding of Goguryeo.

Keywords : Stone-mound tombs, tumulus, Goguryeo, Stone-Covered Tombs, Large capstone stone-piled tombs, The Wanfabozi Site of Tonghua